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 찾아 지반침하 점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월)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그간의 현장 방문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반침하와 관련해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을 방문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

와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 혁신 위원회인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 격년으로 안전 점검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24년 12월에는 신촌 둔지마 폭행이 있었던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 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스마트보안 3대, 로고제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이날 최 의장은 그간의 현장 방문으로 달라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통타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

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사전에 꼼꼼히챙겨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서대문구 창전동으로 이동해 어두운 골목에 설치된 스마트보안등과 로고제터 등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정지웅 의원이 함께 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선 요청 이후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 끝까지 쟁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균형발전 이끌 것”



안 의장은 안성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안성은 도농복합도시로 서부권과 동부권 간 발전 격차가 크다”며 “특히 동부권은 한강수계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많은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입지로 안성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죽·삼죽·보개 등 동부권 역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의회가 나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15개 읍·면·동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제’보다 ‘협력’을 강조했다. 안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예산 조정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경기 침체 상황에서 SOC 사업 확대는 지역 건설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연쇄적인 힐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장은 시민과 지역 언론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역 언론은 안성과 경기도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잘한 점은 격려하고 부족한 점은 날카롭게 지적해 줄 때 행정과 의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의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수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제8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주요업무계획 청취 과정에서 김현미 의원(세종 소당동,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인력 파견보조비 지급과 관련해 “26년부터 특자체 기준경비 협의 규정 신설에 따라 4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지급 가능핚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충청광역권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충청권 암 생존자 통합 지원 체계 구

축,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개최 등 초광역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사무는 개별사업 중심을 넘어 충청권 전반의 권역 단위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새로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권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및 4개 시도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유인호 의원(세종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와 현재의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연합의 존치와 사무 추진 방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지

적했다. 또한 “기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집중 고도화하여 충청광역연합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김선광 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 낼 변화와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며 “충청의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충청광역연합의 존치와 기능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회는 향후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위상 정립과 초광역 협력사업의 전략적 재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 구즉문화센터 방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꽤적인 환경

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세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구민들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다.

정선희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듣는 듯히 반복하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장성 기자

회를 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 준공됐다.

이날 조 의장은 층별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상황 ▲공간

별 활용 계획 ▲주민 이용 편의성 ▲안

전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

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이 특정 계층

에 편중되지 않고 전 연령대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에서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본래 목

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

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금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도병우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엄세벌 의원은 주민 안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고성미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 데이터센터 논란과 관련해 주민 불안 앞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소통과 대응을 촉구했다. 금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현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